

행복·고통은 실체가 없는 것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뭇배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나뭇배는 행인들이 소풍을 밟고 온 밭이든, 진흙이 묻은 흙밭이든 개의치 않습니다. 열어나 갔으나 급한 여울이나 일단 한 번 태웠다 하면 끝까지 저 쪽 피안에 건넌다 주는 것입니다. 책임감이 투철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뭇배라고 하는 마음은 일체 보상을 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에서 내리면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갑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원망도 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전적인 헌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직 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마음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헌신이 바로 마음 중에서도 깊은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행인과 나뭇배에서 그러한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서정주(徐廷柱, 1915~2000) 시인의 '내리는 눈발 속에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괜, 찬, 타...
 괜, 찬, 타...
 괜, 찬, 타...
 수부룩이 내려오는 눈발속에서는
 까투리 매추래기 새끼들도 깃들이어 오는 소리...
 괜찬타... 괜찬타... 괜찬타... 괜찬타...
 폭은히 내려오는 눈발속에서는
 낮이 붉은 처녀(處女)아이들도 깃들이어 오는 소리...

울고
 웃고
 수구리고
 새파라니 열어서
 운명(運命)들이 모두다 안꺼어 드는 소리...

큰눈에겐 큰 눈물 자족, 작은눈에겐 작은 웃음 흔적,
 큰 이야기 작은이야기들이 오부룩이 도란거리며 안꺼어 오는 소리... (下略)

좋지요. 이 괜찮다는 말은 이른바 인간의 흥취를 다 초월한 사람의 마음, 어떤 성자 같은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일체 분별이나 차별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성자 같은 품이기 때문에 까투리 새끼건, 매추래기 새끼건, 낮이 붉은 처녀아이들이건, 다 깃들이어 오면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우는 사람이나 웃는 사람, 수그린 사람이거나 새파랗게 연 사람이든 다 똑같이 평등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다' 하며 이렇게 등을 다독여 주면서 희망과 위로도 주고, 또 힘도 충전해주고 그렇습니다. 이 가슴이 얼마나 크나하면 깃들이어 오는 모든 생명을 다 풀어 안을 수 있습니다. 이 시에서는 거룩한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독일의 릴케(Rainer Maria Rilke, 1875~1926)라고 하는 시인은 개신교 신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 반해서 '광휘 속의 부처



청화 스님의 설법이 끝난 후 '2009 빛고을아카데미'의 성공적인 회향을 자축하며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광주불교사암연합회 임원 스님들.

(Buddha in der glorie)'라는 제목으로 이런 시를 썼습니다. 바로 그 눈부신 빛 한가운데 있는 부처님을 묘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든 중심 속의 중심, 핵심 중의 핵심. 굳게 닫힌 채 달콤해져 가는 편도, 하늘의 모든 별들까지도 그대의 과육(果肉)에 인사를 드리노라. 보거라, 그대! 아무것도 그대에게 매달린 것이 없음을. 그대 과피(果皮)는 무한 속에 묻혀있고 거기서 과즙은 진하게 짜여지네. 밤에서는 광채까지 번쩍이며 그대를 비취주네. 저 위에서는 온갖 태양들이 가득 가득 빛을 뿜으며 돌고 있으니 그대 내부에서는 태양들을 뛰어넘는 일쯤 시작될 모양이네.

이 시속에는 등그런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 등그런 마음은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 "보라. 그대 아무것도 그대에게 매달린 것이 없음을. 그대의 과피는 무한 속에 묻혀있고 거기서 과즙은 진하게 짜여지네"라는 대목입니다. 릴케라는 시인은 싯다르타가 6년 수행을 통해 성불한 내용을 하나의 과일로 이 시 속에서 형상화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일의 크기가 얼마나? 무한속에 묻혀 있어오. 무한히 큰 과일에서 진하게 짜여진 과즙이 있습니다. 이 과즙이 무엇이냐? 과즙은 부처님의 깨달음의 결실인 까닭에 거기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지혜와 자비인 것입니다.

자비는 합성어입니다. '자(慈)'라고 하는 것은 기쁨을 주는 사랑, 그리고 '비(悲)'라고 하는 것은 고통을 제거해주는 사랑. 그래서 기쁨을 주는 사랑과 고통을 제거해주는 사랑,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자비가 된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는 완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흠결이 없어서 둥근 사랑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시를 통해서 편안한 마음, 불안한 마음, 알 수 없는 마음, 희망을 좌우하는 마음, 넓은 마음, 기쁜 마음, 거룩한 마음, 둥근 마음,

이렇게 여덟 가지 마음을 시 속에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덟 가지 밖에 없느냐? 아니요. 불교에서는 팔만사천 번뇌를 이야기합니다. 마는, 가짓수로 한다면 팔만사천으로 분류할 수도 있겠지요.

이러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특정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마음이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다만 불안한 마음을 많이 쓰거나, 알 수 없는 마음을 많이 쓰거나 그런 것입니다. 자기의 업이나 생활환경, 습관에 따라서 자꾸 응 좋은 마음, 인색한 마음, 좁은 마음 이런 것을 쓰는 것입니다. 보다 월등히 훌륭하고 좋으며 가치 있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사람 가슴에는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쓰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인생은 마음먹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괴롭다. 슬프다. 그런 것들은 그렇게 우리가 느낄 뿐이지 실체가 없습니다. 슬프다고 했을 때 어떤 모습입니까? 단지 느낌뿐입니다. 또 기쁨, 행복, 고통도 다 마찬가지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원리를 알고 산다면 마음을 잘 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잘 쓰에 따라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도 훨씬 유연함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재미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관점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하고, 마음을 크게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법문 듣는 이후로 좁은 마음을 버리고 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 수용할 수 있고 무엇이든 감할 수 있는 세상을 감할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정리-양행선 광주 전법지사장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72. 몽월 차만석 대화상

"마음에 등불을 밝혀주세요. 부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등불 이야기를 하시는 스님. 그 스님의 이름이 몽월 차만석(1919~2003) 스님이다. 1927년 관악산 연주암에서 월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몽월 스님은 강원도 건봉사 불교강원을 졸업했다. 1970년 몽월일강회를 창립했으며 1989년에는 본동사회복지관을 운영하기도 했다. 또 몽월어린이회를 창립해 30여년간 어린이 포교활동을 펼치는 등 불교 대중화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태고종 승정을 지낸 몽월 스님은 2003년 10월 16일 오후 6시, 세수 83, 법랍 77세로 서울 본동 극락정사에서 열반했다.

환의사 영은 스님은 45세에 삼막사에 들어가하여 경기 일원의 공

"예, 육심내지 않고 세상의 고통과 재난을 위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과연 그 뒤로 국회의원이 되어



나쁜 은 천하가 희히 밝아질 것 이야."

스님은 어느 곳에서나 반말이다. 반말 듣고 두들겨 맞은 유생에게 배운 것이다. 스님을 가르친 김일후 스님은 당시 박한영, 진진홍, 변설호 스님과 함께 한국 4대 강백의 한 분으로 법문도 잘 하고 강의도 알기 쉽게 잘 했기 때문에 그 풍을 그대로 살려서 무엇이든 걸리는 것이 없었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극락정사에는 불공채가 없고, 기도비도 따로 없다. 무엇이든 정성껏 갖다놓고 기도하면 아니 되는 일이 없다. 단지 중요한 것은 정성이다.

"기도하고 절 하세요. 기도하면 속이 비워지고, 절 하면 하심하게 됩니다. 껌데기 마음 비워 버리고 누구도 가리지 말고 공경하면 가는 길에 장애가 없어집니다. 천생 일 알고 싶으면 현재 나를 보고, 내생을 알고 싶으면 현

어린이·재소자 등 약자 포교에 앞장서... '정성' 강조

의(公)로 활동하셨는데, 쌍둥이 들을 한꺼번에 출가시켜 부처님 제자를 만들었다. 그러나 당시 스님들은 너무도 가난해 밥도 먹기 어려웠기 때문에 종종 건립패를 조직, 동량을 나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 덕분에 동냥을 나가지 않고 단골 신도들에게 공양미를 받으러 갔다가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노스님에게 반말하는 유생을 보고 때려놓려 물때를 밟고 죽을 뻔 하기도 했다고 하였다.

한번은 노랑진 극락정사에 가니 서창원씨 부부가 와 있었다. 담배를 손에 들고 있는 스님 앞에 두 무릎을 꿇고 있는 부부는 진지한 마음으로 법문을 듣고 있었다.

"자네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훌륭한데, 그러나 남의 일 보다가 망신 당하는 일이 있으니 조심하게. 명예와 돈이 사람을 망치거든."

훌륭한 인격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더욱 귀에 생생하게 들릴 것이다.

스님은 무슨 일이고 자신만만 하였다. 안양교도소 법회에 가면 떡을 다섯 가마니씩 하여 한때라도 속에 딱 차도록 먹게 하였으며, 재소자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교도관 가족들에게까지도 떡을 따로 싸가지고 갔다.

"저분들 덕분에 먹고 살고 있으니 빠르게 지도하여 밝은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안하면 몰라도, 심지어 무의탁자들의 영치금까지도 넣어주었다.

"세상은 꿈이야. 괜 꿈도 꿈이지만 꿈은 잘 껴야 꿈이 깨달을 수 있다고. 내가 꿈을 껴보니 꿈은 실다운 형상이 없네. 천강에 비친 달이 마음이 없는 것 같아. 명예와 돈이 사람을 망치거든. 형상도 없고 마음도 없는 것이 부처이니 꿈을 깨고

재나 하는 일 보십시오. 이것이 <인과경> 말씀입니다."

이것이 스님의 교훈이고 법문이다.

문하에는 상좌, 법상좌, 수계상좌, 참회상좌, 순상좌 20여명이 가족처럼 단결하여 모든 회로에 락을 내일처럼 보살피고 있다. 무슨 일이 있다고 말씀드리면 무조건 "사랑하라" 하신다. "사랑하면 없는 자식도 낳는데, 이 세상 아니 되는 일이 무엇이 있었느냐" 하신 말씀이 만석 대존자 몽월 대선사의 법문이다.

꿈에 만가지 형상을 밝아도 꿈은 형상이 없고(夢踏萬境夢無形/ 달이 천강을 비치되 달은 마음이 없더라(月照千江月無心)/ 형상이 없고 마음도 없는 것이 실상이니(無形無心是實相/ 꿈을 껴 천하에는 달만이 길히 밝더라(夢覺天下月長明).

해성불원(海成佛院) 자비회(慈悲會)

삼보에 귀의 하시고 부처님의 자비의 광명이 온누리에 비추어 중생들의 소원성취 이루도록 발원 하옵니다.

베트남, 중국(한족),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몽골 아가씨와 짝지어 주기 운동 - 결혼정보 초혼·재혼 -

- 중국(한족)아가씨 신랑 한 사람 당 신부 열 명의 선을 보고 일일이 공함을 보고 공함이 좋은 아가씨 채택 방문하여 부모들을 만나보고 사는 모습과 미진한 점등을 묻고 살펴서 완전 무결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 (스님의 직접 통역 하에)
- 의심점이 있으신 분 먼저 중국에 결혼한 신랑들과 연결하여 투명하게 연결도 하여 드립니다. (원하시는 분들께)
- 한족은 태국, 필리핀, 베트남 아가씨들과 똑같습니다. 우리말을 전혀 모르니까 (한국말을 나오면 가르쳐야 합니다)
- 자격: 직장이 있는 자, 전세방이라도 있는 자 (직장 확인서 1통, 갑근세 증명서 1통, 전세 계약서 사본 1통)

⇒ 왕복항공료, 호텔숙박비, 식대, 국제결혼 서류 작성비

신부 입국 모든 제반 일체를 책임성 있게 일괄 처리

국제결혼 서류대행
 1. 번역 3. 친지방문
 2. 공증 4. 국적취득신청
 상담 010-9955-9093

◆ 담당: 만해 스님 합장 인천 광역시 남구 용현동 463-57 우.402-202 (전등사 내)
 주·야 핸드폰 010-5494-9595 / 전화 032)886-1661 / 070-8192-1661
 서울사무실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3가70아자빌딩 1505호(해피씨티 내)

장애를 갖고 있는 분 특별 결혼 정보

캄보디아·베트남·네팔



해성불원 자비회는 특별히 불자 가정 장애우님들께 봉사의 마음으로 해외에서 포교하시는 스님들과 짝지어 주기 운동을 전개 하였습니다.

자격조건=생활능력 있는분

불교가족 선남 선여 짝 지어 주기

불교가족 중 과년한 선남·선여들에 한함 재혼자 남·여(가족 사항 자제히 기입 할 것)

- 신청 방법
1. 명함판 사진 1매
 2. 자기 소개 이력서(상세히)
 3. 직장자택우무

자비회에서는 공함을 보아 좋은 커플을 소개 하오니 음력으로 년월일 시를 정확히 기재 전등사 또는 서울 사무소로 신청서류 보내세요.

담당스님 만해 합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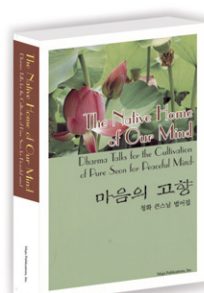
마음의 고향 (The Native Home of Our Mind)

"염불선은 우주와 둘 아닌 자성청정심 염하는 것" 당신이 아미타불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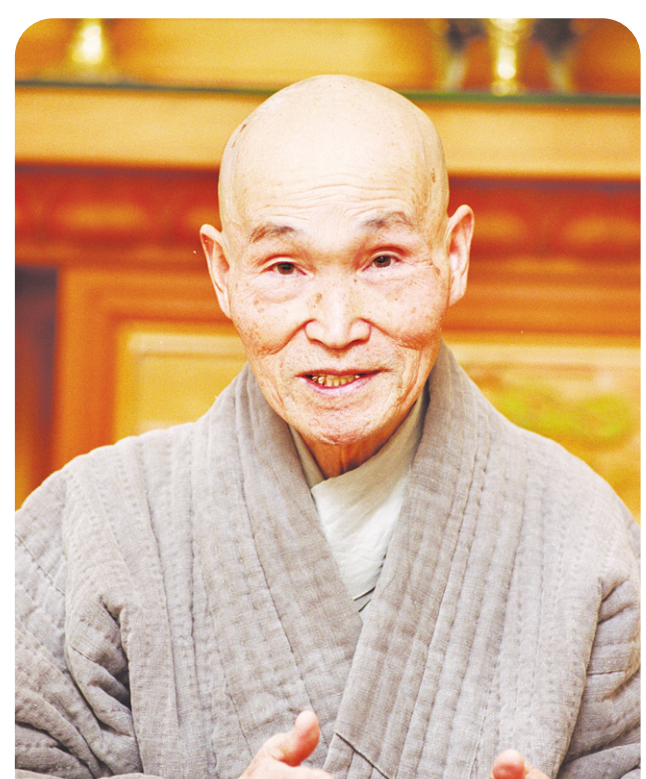
누구나 어린 시절의 고향을 간절히 그리워하듯 우리가 잃어버린 진아(眞我), 본심을 회복하기를 기원하는 무주당 청화대선사의 답 **마음의 고향**

40여년간 하루 한 끼의 식사와 장좌불와(長坐不動)로, 때로는 뼈를 깎는 허기 속에서 쓰러져가는 몸을 새끼줄로 기둥에 묶어놓고 당신의 생명을 마지막까지 불태우면서 자각각타(自覺覺他)의 길을 열었던 무주당(無住堂) 청화(淸華) 대선사.

청화 스님이 나와 일체존재의 실상(實相)을 설명한 법어집 <마음의 고향> 영·한 대역본



무주당 청화 지음
 효산 박영의 번역
 여강 주경 펴냄
 613쪽 | 값 22,000원



무주출판사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 810-1 전화 033)661-5736 / 팩스 033)661-5726